

# 宣言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 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인류평등의 대의를 분명하게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마땅한 권리를 영유케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함이며, 이 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여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를 제기함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라,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누르지 못할지니라.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을 당하여, 유사 이래 누천년에 처음으로 이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십년이 과한지라, 우리가 생존권마저 벗겨져 없어짐이 무릇 얼마이며, 심령상 발전의 장애를 입은 일이 무릇 얼마이며, 민족적 존영의 훼손됨이 뭇

얼마이며, 새롭고 예리한 기세와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대조류에 이바지할 기회를 유실함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라, 구래의 억울함을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리고자 하면, 지금의 고통을 피할하려 하면, 강래의 위협을 배어 없애 버리려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영지와 도의가 짓눌려 쇠하여 사라지는 것을 흥분신장하려 하면, 각개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따르려 하면, 가련한 후손에게 고통과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 길이 온전한 경사와 복됨을 인도하여 맞이하려면, 최대 급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이천만 각개 모두가 方寸의 刀을 懷하고, 인류 공통의 성품과 시대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어 인도주의의 창과 방패로서 지키고 도우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추하며 어떤 힘도 꺾지 못할 것이며, 풀려서, 도모하며 무슨 뜻인들 꺾지 못하리!

병자수호조약 이래로 시시때때로 금석맹약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 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조상대대로 전하

여 오는 이 터전을 식민지시하고, 우리 문화민족을 미개한 것처럼 대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를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래도록 이어져온 사회구조와 높고 빛나는 민족심리를 무시한다 하야 일본의 의롭지 않음을 책하려 아니 하노라.

자기를 책려하기에 급한 우리는 타인을 원망하고 꾸짖을 한가함을 갖지도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급한 우리는 오래지 않은 지난 일을 벌이고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 금일 우리의 소임은 다만 자기를 세우는데 있을 뿐이요, 결코 타인을 파괴하는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함이며, 결코 구원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타인을 질시하고 배척함이 아니로다.

구사상, 구세력에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의 공명적 희생이 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착오상태를 고쳐서 바로 하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르고 큰 원칙으로 귀환케 함이로다.

당초에 이 민족의 요구로서 나오지 아니한 양국병합의 결과, 필경 고식적 위압과 차별적 불평과 통계숫자상

허울 좋게 꾸민 것으로 인해 이해가 상반된 두 민족간에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원한과 불화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지금의 사정을 보라.

용감하고 과감하게 옛 잘못을 크게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초한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함이 서로 간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첩경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더냐!  
또, 二千萬 島民과 원한이 쌓인 백성을 威力으로써 拘束함은 다만 東洋의 永久한 平和를 보장하는 까닭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東洋安危의 한축인 四億萬 支那人의 日本에 對한 두려움으로 시기하고 의심함이 갈수록 농후케 하야, 그 결과로 東洋의 全局面이 함께 넓어지고 말하는 悲運을 招來할 것이 명백하니, 今日 우리 朝鮮獨立은 朝鮮人으로 하야금 正當한 생존과 權利를 이루게 하는 同時에, 日本으로 하야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東洋을 버리고 나갈 이로서의 重責을 온전케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야금 蕪麻에도 免하지 못하는 不安 恐怖로서 脫出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로 重要한 一部를 삼는 世界平和와 人類幸福에 필요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區區한 感情上의 問題이리오.

아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는도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연마하며 키우고 기른 인본주의 정신이 드디어 새로운 문명의 밝은 빛을 온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흑독한 추위가 사람의 숨통을 틀어막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 때의 형세라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원기와 혈맥을 펴쳐 파는 것은 이 한 때의 형세이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천지의 대운수를 맞이하여 세계의 새롭게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지니고 생명의 왕성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의 차고 넘치는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문화를 찬란히 꽃피우리라.

우리는 오늘 떨쳐 일어난 바이라.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옛집에서 활발히 뛰쳐나와 삼리만상으로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억만대 조상님들의 신령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며 밖에서 새로운 전 세계의 기운이 우리를 호위하하니, 시적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의 광명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갈 뿐이로다.

## 公約三章

一、今日 우리의 이 거사는 正義人道 生存 尊榮을 爲하는 民族의 要求이니 오직 自由的 精神을 發揮할 것이요 결코 排他的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二、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徹히 發表하라

三、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야 우리의 主張과 態度로 하야금 어디까지나 光明正大하게 하라

朝鮮建國 四千二百五十二年 三月 一日



우리는 해와 달도 별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별을 해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3.1기미독립선언문이 온건하고 나약했다는 비판의 소리로 있습니다. 민족대표들이 민중의 동향에 예상보다 거침어지지 스스로 운동의 주도권을 놓아 버렸기에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침 그때는 충분히 유희사대를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동안 억눌려 왔던 민족의 울분이 분출하자 견잡을 수 없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곳곳에서 학살이 자행되고 어린 학생들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희생이 따랐습니다. 통계수치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불과 수 개월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1년여 동안이나 시위가 지속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죽음을 불사하는 민중의 기세를 눈앞에서 마주한 일본 헌병들의 두려움은 더욱 참혹한 탄압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많은 희생을 보다 못해 독립운동을 말리려 다니는 자제운동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민족적 열기의 규모를 확실하게 알 길은 없으나 운동 횟수는 2,000회 이상, 참가 인원은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조선총독부의 통계자료도 절반 이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기억해주는 이가 없더라도 어떻게 별처럼 스러져간 수많은 이가 있습니다. 총칼에 두려움 없이 몸을 던진 그들은 밤하늘의 빛나는 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류가 많은 스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을 열광케 하면서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의 독립을 앞장서 외치다 별처럼 사라져간 한 명 한 명이 모두 스타입니다. 독재에 항거해 시위대를 이끌다 희생되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숨을 다하고, 속 안의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산화한 젊은이들도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다 다시 환생하여 존재도 그리던 광복된 나라 대한민국, 다양함이 존중받는 자유 민주사회에서 마음껏 재능을 펼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토해내는데 어찌 보는 이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의 큰 변곡점마다 항상 어린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의 역할은 항상 특출했습니다. 그 날도 수천 명의 남녀 학생들이 선언을 끝내고 탐골공원을 나갈 때 수만의 군중이 호응했고 온 서울 시내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로 시작된 3.1운동의 불길은 전체 민족이 하나의 목표로 대동단결하여 불기한 대규모 독립운동으로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3.1운동은 맨손으로 민중이 독립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세계혁명사에 하나의 신기원을 이룩하였고 그것은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인 훗날시위로 승화되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그때의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송고한 희생을 전제로 한 3.1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촛불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힘은 항상 어린 학생들의 피와 희생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영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비폭력평화시위를 주장한 3.1만세운동에 일제가 감동을 받아 무슨 조선을 독립시켜 준다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물론 학살을 자행하는 일제의 야만성을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폭력 저항을 끈질기게 전개하는 한민족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진 일본은 식민통치 방식에서 완화책을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동족 간에 분열책을 획책하는 교활한 방법으로 치밀해집니다. 그들의 집요한 설득에 넘어간 사람과 자신해서 일본에 협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도 국운이 쇠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대가로 선택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鞭七杖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운이 있듯이 한 국가에도 운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 국운이 좋아도 너무 좋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천운에 자신감도 충만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하고도 독립처럼 쫓겨가지 않고 불운이 겹치는 우리가 돌로 쫓겨했습니다. 곧 바로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맞보아야 했고 일본은 전쟁특수를 통해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대국으로 거듭납니다. 근세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은둔의 나라에서 뒤늦게나마 중국 중심의 시대주의에서 깨어나 서양의 신문물들을 접하고 국제정세에도 눈뜨면서 할 일이 많아진 우리의 지식인들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준비하기에 급한 우리는 오래지 않은 지난 일을 벌이고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도 힘겹게 지켜온 나라를 전쟁 한 번 없이 국권을 넘겨주고 나라 잃은 백성이 되는 치욕을 당해, 세계조류에 함께 할 수 없음을 얼마나 항당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아래로 보였던 일본이 급부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존재

감을 드러낼 때 뜻 있는 지식들은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자각과 나라를 뺏긴 통탄이 사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낮을 만들고 있을 때 일본은 비행기를 만들어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대하던 중국을 가볍게 누르고 러시아의 자랑인 발틱함대를 깨부수는 것도 부럽게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대동아 공영'을 외치면서 승진보를 계속 전하는 위세 앞에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운을 당해 낼 도리는 없었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지식인들의 고뇌는 깊어지기만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오늘날의 우리도 또한 '자기를 책려하기에 급한 우리는 타인을 원망하고 꾸짖을 한가함을 갖지도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급한 우리는 오래지 않은 지난 일을 벌이고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치욕스런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은 한 번 더 크게 도약해야 합니다. 극강한 나라의 백성이 구차한 선택의 강요를 받으면서 고뇌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세기를 시간여행을 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에 온다면 다시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아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도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연마하며 키우고 기른 인본주의 정신이 드디어 새로운 문명의 밝은 빛을 온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도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천지의 대운수를 맞이 하야 세계의 새롭게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지니고 생명의 왕성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의 차고 넘치는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문화를 찬란히 꽃피우리라.'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까지 오고, 민주화를 우리 스스로의 피를 흘리면서 기어이 이루어 내고, 한류의 바람으로 세계를 휩쓸고, 군사력은 세계 6위로서 우리는 경제, 문화, 국방의 4관왕에 후보로 오르는 어떤 나라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을 기다려온 우리에게 돌아온 국운의 징조가 아닐까요? 대운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디언 기우체'처럼 포기하지 않고 운이 올 때까지 버티는 데는 당할 장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어떤 사명을 가

지고 버티는 민족인지도 모릅니다. 대륙의 모퉁이에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니다. 하늘은 큰일을 할 사람에게 시련을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이 많은 것도 어떤 것을 위해 온갖 시련과 고난을 헤쳐 오면서 인고의 세월을 이어온 서러움이 쌓이고 쌓여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한'을 부여 안고 우리는 신바람 나게 일할 때를 기다려왔고 '흥만 돌이주면 우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끌어오르는 국민의 에너지 한 흐름으로 모아주기만 하면 새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 우리가 21세기를 주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4관왕의 후보에서 안주하지 않고 명실공히 4관왕이 된다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이 꿈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억만대 조상님들의 신령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며 새로운 전 세계의 기운이 우리를 호위하하니, 시적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의 광명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갈 뿐이로다.'

**NO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BOYCOTT JAPAN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합니다. 2019년 7월 4일,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발동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을 무너뜨리려고 단행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정서는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제(일본 제국주의)는 당연히 구매해서는 안 되는 품목이라 소멸되었지만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관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역 흑자국에서 수출규제라는 이상한 도발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감정을 건드린 결과 일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광복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불매운동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일제 불매운동이 있었지만 일부만 동참하거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주도적

**알통 교통질서 캠페인**  
총 1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알통'에서 검색을 통해 참여하세요.

지금 알통에서는 총 상금 1억 원이 넘는 통큰 이벤트 진행 중!

'알통'으로 앱 검색 또는 구글이나 Daum 웹 검색



대한민국 나비효과

인공지능+인간지능

www.altong.com



주식회사 알통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코오롱디지털빌라드2차  
전화: (02)330-3000 메일: admin@altong.com